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8.05~2026.08.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인공지능(데이터), 위성곤(해양), 민선(성과), 재생에너지(기후), 우주(발사)
경제·관광	소상공인(생산), 관광객(여행), 항공(노선), 로컬푸드(농산물), 청년(투자)
지역·사회	폭염(열대야), 태풍(강수량), 가뭄(중산간), 돌고래(보호), 당근(파종)

※ 분석 기간 : 26.08.05.~26.08.1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인공지능(데이터)	- 제주 공직자 개인형 생성형 AI 'AI:ON' 운영 - 40MW 그린 AI 데이터센터 'AX 대전환' 시동 - 기후·해양 재난 AX 실증사업 선정
	위성곤(해양)	- 위성곤 지사, 국회의장에 제주 현안 지원 요청 - 주간정책회의 '수용자 중심 정책 설계' 주문 - 상인연합회 간담회...골목상권 회복 협력
	민선(성과)	- 민선 9기 첫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 100대 공약 실천계획 수립...공약실천위 출범 - 첫 정기인사 맞춰 도청사 전면 재배치
	재생에너지(기후)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 풍력기금으로 취약가구 전기요금 지원 -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기후보험' 첫 시행
	우주(발사)	- 제2우주센터 유치전, 제주-광주 2파전 - 제주도, 해상발사 중심 우주 생태계 역제안 - 한화시스템과 우주산업 협력 고도화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생산)	- 위기업종 소상공인 300억 특별보증 가동 - 소상공인 AI·디지털 튜터 77개 점포 매칭 -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 매출 1조7931억원
	관광객(여행)	- 유럽·북미 공략 성과...고부가 관광지 부상 -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6.7% 인상 -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9월 첫 도입
	항공(노선)	- 제주항공 한~중 노선 여객 37% 증가 - 제주항공 2분기 매출 4417억 '역대 최대' - 제주항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로컬푸드(농산물)	- 로컬푸드, 6차산업 중심축으로 조명 - 폭염발 '히트플레이션' 우려 확산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알리기 행사 잇따라
	청년(투자)	- '농심천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출범 - 도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유치 성과 잇따라 - 제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61명 추가 채용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폭염(열대야)	- 폭염·열대야 특보 한 달여 만에 해제 - 7월 폭염일수 역대 1위...강수량 평년 절반 - 드론 예찰·이동형 냉방대피소 운영
	태풍(강수량)	- 태풍 '돌핀' 간접영향...강풍 동반 단비 - 태풍 강풍에 시설물 피해...강수량은 미미 - 태풍 대비 해상·현장 안전점검 강화
	가뭄(중산간)	- 폭염·가뭄에 물 사용 급증...비상급수 가동 - 한 달여 만의 단비, 가뭄 해갈엔 역부족 -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현장 점검
	돌고래(보호)	- 돌고래 관광선박 관람지침 위반 실태 확인 - 관광선박 수중소음, 돌고래 소통 방해 우려 - 단속 없는 관람지침...관리체계 마련 시급
	당근(파종)	- 폭염·가뭄에 당근 파종률 20% 그쳐 - 단비 대신 강풍만...당근 농가 비상 - 단비에 파종 재개...이번 주 '속도전'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8월 5일~8월 1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31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1건, 경제·관광 155건, 지역·사회 47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데이터), 위성곤(해양), 민선(성과), 재생에너지(기후), 우주(발사)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인공지능 (데이터) - 제주 공직자 개인형 생성형 AI 'AI:ON' 운영 · 제주도가 행정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개인형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환경 'AI:ON'을 8월부터 운영하며, 부서가 하나의 AI 모델을 공용계정으로 함께 쓰던 방식을 개인별 멀티 AI 계정으로 전환해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업무 이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골라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전 직원이 생성형 AI를 일상적인 기본 도구로 활용하도록 반복업무를 처리하는 AI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자료 탐색·분석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의 입력을
---------------------	---

정치·행정	인공지능 (데이터)	제한하고 생성 결과 확인과 보안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활용 장치를 병행해 업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 40MW 그린 AI 데이터센터 'AX 대전환' 시동 · 제주도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권 AX (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사업 기획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40MW 규모의 그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과 AI 전문 인재 양성까지 연계하는 3축 기획을 본격화함. · 제주권 AX 대전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올해 제주와 충남, 강원 권역에서 추진되며, 2027년 실증을 거쳐 2028년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오는 13일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AX를 도 전역으로 확산해 전국을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이 본격 진행됨. - 기후·해양 재난 AX 실증사업 선정 · 제주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AX 실증사업'에 선정돼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사업에 착수하며, 올해 8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각종 자연재해를 AI로 예측하는 체계를 시범 도입함. ·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의 기후·해양 재난을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재난안전 인공지능 전환 체계가 들어서면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 피해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성곤 (해양)	- 위성곤 지사, 국회의장에 제주 현안 지원 요청 ·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의 핵심전략과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제주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현안 해소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함. · 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 생활 현안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를 건의했으며,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한 만큼 제주 관련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됨. - 주간정책회의 '수용자 중심 정책 설계' 주문 · 위성곤 지사가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교통·관광·농업·응급의료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정책의 공급과 운영 편의보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필요와 불편을 우선하는 수용자 중심의 정책 강화를 공직자들에게 당부함. · 위 지사는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면 실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수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으며, 정책과 행정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 의견을 보다 많이 듣고 반영하는 행정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상인연합회 간담회...골목상권 회복 협력 · 위성곤 지사가 10일 제주시 동문시장고객지원센터에서 고정호 회장 등 제주

정치·행정	위성곤 (해양)	도상인연합회 임원진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직접 파악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운영비 지원과 낡은 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위 지사와 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 현장 소통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민선 (성과)	- 민선 9기 첫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으로 지명된 이상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으며 강명균·강봉직·김덕홍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함. - 이 후보자가 불과 한 달 전까지 도정을 견제하던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인 만큼 '견제 기관 수장의 집행부 직행'에 따른 도덕성·적절성 논란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며, 민선 9기 첫 행정시장 인사 검증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됨. - 100대 공약 실천계획 수립...공약실천위 출범 - 제주도가 민선 9기 도정 100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김일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 공약 실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으며, 학계·시민단체·분야별 전문가 등 94명이 10개 분과에 참여해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함. - 위원회는 100개 공약에 대한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과 이행지표, 투자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공약 변경·조정 사항을 심의하는 도민배심원단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도민 참여형 공약 관리 체계가 가동됨. - 첫 정기인사 맞춰 도청사 전면 재배치 -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와 맞물려 제주도가 대대적인 청사 재배치에 들어갔으며, 공유재산 매입을 거쳐 8월 정기인사부터 본격 가동되는 옛 제주경찰청사에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과와 분산에너지과 등 도시건설과 외부에 배치됐던 미래·에너지 분야 부서가 집중 배치됨. 2018년 민선 7기 조직개편 이후 협소한 업무공간 탓에 도청을 떠나 건설회관 등 민간 건물에서 임대 생활을 해온 부서들이 8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하는 등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과 공유재산 맞교환에 맞춘 청사 재배치가 진행됨.
	재생 에너지 (기후)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돼 규제의 빗장이 풀림.

정치·행정	재생 에너지 (기후)	·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 도로 이격 200m'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가 도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풍력기금으로 취약가구 전기요금 지원 · 제주도가 풍력발전으로 모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용해 무더위 에너지 취약가구를 지원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장애인·조손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전기요금을 지원해 폭염 장기화 속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게 됨. · 지원 비용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기금은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제주도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전력판매 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사례로 평가됨. -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기후보험' 첫 시행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고병기)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가입되는 전국 첫 사례임. · 폭염특보가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더위 속에 작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장치가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우주 (발사)	- 제2우주센터 유치전, 제주-광주 2파전 · 우주항공청이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제주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2개 지자체가 응모해 2파전 구도가 형성됐으며, 건립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건립지가 발표될 예정임. · 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되며, 실제 발사체 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췄는지가 입지 선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제주도, 해상발사 중심 우주 생태계 역제안 · 제주도가 정부가 공모한 육상 발사 대신 해상발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정부에 역으로 제안했으며, '민가 없는 반경 3km'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체 추진 발사체 발사에 활용 중인 중문 인근 해상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제시함. · 170만평 규모 부지와 안전반경 등 육상 입지의 한계 대신 제주가 이미 확보한 위성 생산과 해상발사 역량을 연계해 '위성 생산-해상발사-관제'로 이어지

정치·행정	우주 (발사)	는 제주형 우주산업을 제안한 것으로, 육상 공모에 대한 해상 역제안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됨. - 한화시스템과 우주산업 협력 고도화 · 위성곤 지사가 11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조성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현장에서 논의했으며,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고도화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과 핵심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 지역 인재 채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됨. ·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조립·시험 시설을 갖춘 제주도는 인공위성 운용·관제 장비 구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위 지사가 한화 제주우주센터를 우주경제 전초기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도정도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소상공인** (생산), **관광객(여행)**, **항공(노선)**, **로컬푸드(농산물)**, **청년(투자)**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 (생산)	- 위기업종 소상공인 300억 특별보증 가동 · 제주도가 10일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카카오뱅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형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가동됐으며, 제주형 위기업종으로 선정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음. ·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며 1000여곳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제주 중소기업육성 협약금융기관으로 새로 참여하는 등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상공인 AI·디지털 튜터 77개 점포 매칭 · 제주도가 지난 4월 시작한 '현장지원 소상공인 AI·디지털 튜터 양성 및 매칭사업'이 도내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장으로 직접 찾아온 튜터와 나란히 앉아 온라인 홍보와 고객 관리 방법을 익히는 제주 소상공인이 77개 점포로 늘어남. ·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튜터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과 함께 온라인 홍보·고객 관리 실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방식이 호응을 얻으며 소상공인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 매출 1조7931억원 · 제주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제주 식품 제조·가공업은 최근 7년간 매출이 46.3% 증가해 1조7931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고용을 함께 늘리고 수익성에서도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지역 식품산업의 성장세가 확인됨. · 다만 성장 속도가 전국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기업당·1인당 매출도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러 생산성 격차가 과제로 지적되면서,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됨.
	관광객 (여행)	- 유럽·북미 공략 성과...고부가 관광지 부상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올해 상반기 유럽·북미 등 구미주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전략적 마케팅이 결실을 맺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제주 해안 243km를 일주하는 사이클링 상품이 출시돼 지난 3일부터 3박4일 일정의 첫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프랑스에서는 해녀 문화 체험과 런케이션 상품이 선보임. · 하반기에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경유여행 홍보와 캐나다 여행업계 팸투어 등으로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으로, 고품격 체류형 상품을 앞세운 마케팅에 힘입어 제주가 글로벌 고부가가치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6.7% 인상 · 지난 6월 정점을 찍은 후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월 다시 인상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이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달 1만6500원보다 4400원(26.7%) 오른 2만900원으로 결정해 항공료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나 업무 등으로 육지를 오가는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항공 공급좌석 감소와 맞물릴 경우 휴가철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 수요 위축이 우려돼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림. -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9월 첫 도입 - 제주도가 오는 9월부터 읍·면지역에 심야주유소를 시범 도입해 제주 농어촌 지역에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주유소가 처음 생기며, 시범 주유소 5곳 이상을 선정해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운영함으로써 읍·면지역의 야간 주유 공백을 해소할 예정임. - 제주여행 중 읍·면지역에 머무는 렌터카 이용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야간 주유 불편이 크게 줄어든 전망으로, 밤시간 주유 걱정 없이 읍·면지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관광 편의와 주민 생활 여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항공 (노선)	- 제주항공 한~중 노선 여객 37% 증가 - 제주항공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중 노선에 49만4300여석을 공급해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9900여석보다 26.8% 늘렸으며, 같은 기간 탑승객은 37.4% 증가하고 제주~베이징(다싱)을 비롯한 지방발 노선의 탑승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비자 정책 확대와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 개별·소규모 여행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이용객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3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주·청두·충칭 노선의 증편·운항도 연내 검토되는 등 중국 노선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 제주항공 2분기 매출 4417억 '역대 최대' - 제주항공이 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 441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 3154억원보다 40%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으며, 다만 중동발 후폭풍에 영업손실 524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흑자 전환함. - 올해 상반기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660만명의 여객을 수송했고 평균 탑승률은 90.9%로 이스타항공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저비용항공사 전체 이용객이 2857만명으로 대형항공사를 크게 웃돌며 여객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음. - 제주항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주항공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11일 발간했으며, 지난 2024년 국적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해마다 ESG 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올해 보고서는 기존의 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으며 ESG위원회와 안전위원회 신설 등이 반영돼, 저비용항공사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ESG 경영 정보 공개를 이어가는 행보를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됨.

경제·관광	로컬푸드 (농산물)	- 로컬푸드, 6차산업 중심축으로 조명 · 제주매일이 '제주 로컬푸드를 만나다' 기획 연재를 통해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와 제철 먹거리, 식품첨가물과 건강한 식생활 등을 차례로 짚은 데 이어, 로컬푸드를 지역 브랜드 자산이자 제주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6차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울 가능성을 조명함. · 연재 마지막 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주제로 로컬푸드가 앞으로 제주 먹거리를 위한 분명한 지향점임을 제시했으며, 청정 환경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영역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돼 지역 먹거리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됨. - 폭염발 '히트플레이션' 우려 확산 ·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제주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새 84.6% 오르고 오이도 92% 상승한 가운데 양식장에서는 광어 폐사가 잇따르고 있음. · 발작물은 고온 피해로 출하량이 줄고 양식장에서는 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고수온 여파가 누적되면서 9월에는 가격 상승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농수산물 물가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알리기 행사 잇따라 · 환경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양숙)은 지난 7일 환경농협 하나로마트 출입구에서 '사랑의 미니단호박 나눔' 행사를 열어 판포리 포구와 신창해안도로 등 한경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하나로마트 방문객 등 700여명에게 미니단호박을 나눠주며 지역 농산물을 홍보함. ·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오는 15일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오봉리상인회가 주최하는 '제4회 서머 페스티벌'이 열려 향토음식점 운영과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 해녀들의 예술공연 등이 진행되는 등 지역 먹거리와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가 이어짐.
	청년 (투자)	- '농심천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출범 · 제주농협(본부장 이춘협)이 지난 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심천심 제주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출범식을 열고 청년농업인 중심의 소통·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으며, 청년농업인 아카데미와 청년농부사관학교제주연합회, 제주청농회,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함. · 커뮤니티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소통·협력 플랫폼으로, 청년농업인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주 농업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도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유치 성과 잇따라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주)잇뉴(대표 고병욱)가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선정돼 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경제·관광	청년 (투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업 (주)다스온(대표 신동군)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틱스(TIPS) R&D 일반트랙에 선정돼 2년간 8억원 지원이 확정되는 등 의료용 실리콘·창상피복재 소재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도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이 더해짐. - 제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61명 추가 채용 · 제주시가 추가경정예산 17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2차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40명과 청년 공공일자리 21명 등 신규 참여자 61명을 추가 채용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을 진행함. · 기존 사업 참여자의 근무 기간도 12월까지 1개월 연장해 참여자들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폭염(열대야), 태풍(강수량), 가뭄(중산간), 돌고래(보호), 당근(파종)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폭염 (열대야)	- 폭염·열대야 특보 한 달여 만에 해제 · 제주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등이 11일 모두 해제됐으며, 지난 7월 7일 폭염특보가 처음 발령된 후 한 달여 만으로 그간 제주시는 열대야 35일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극한 더위가 이어져 오다 입추가 지나면서 기세가 한풀 꺾임. · 특보 해제 이후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예보되는 등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무더위 국면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폭염 피해 우려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7월 폭염일수 역대 1위…강수량 평년 절반 · 제주지방기상청의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27.4도로 평년(25.5도)보다 1.9도 높은 역대 4위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는 제주 15일·서귀포 7일로 역대 1위에 오른 반면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만 내린 것으로 나타남. · 역대급 폭염 속에 여름 성수기 제주지역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 53명에 사망자 1명이 발생했으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물놀이·수중레저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도 급증하는 등 장기 폭염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확인됨. - 드론 예찰·이동형 냉방대피소 운영 ·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오는 31일까지 중산간 방범순찰과 함께 드론 공중 예찰과 순찰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형 냉방대피소'를 운영하며, 고령이거나 혼자 농작업을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 속 농업인 보호 활동에 나섬. · 드론을 활용한 중산간 농경지 공중 예찰로 폭염 속 홀로 밭일을 하는 고령 농업인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대형 순찰차를 이동형 냉방대피소로 활용해 현장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현장 밀착형 보호 활동이 강화됨.
	태풍 (강수량)	- 태풍 '돌핀' 간접영향…강풍 동반 대비 · 제13호 태풍 돌핀이 북상하면서 제주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됐으며, 8일 산지와 중산간부터 비가 시작돼 8일 오전부터 9일 늦은 밤까지 산지·중산간에 최고 60mm, 가뭄이 심각한 해안지역에도 5~30mm의 비가 예보됨. · 마른 장마 이후 비 소식이 없던 제주에 한 달여 만에 내리는 비로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극한 폭염으로 심각한 농작물 가뭄에 직면한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되면서 폭염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됨. - 태풍 강풍에 시설물 피해…강수량은 미미 ·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지난 8일 오후 서귀

	태풍 (강수량)	포시 호근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선 등 8일부터 9일까지 강풍 관련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름. · 기대했던 단비 대신 거센 강풍만 몰아친 지역이 많아 당근 주산지인 구좌 지역의 강수량은 4.5mm에 그쳤으며, 밭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태풍의 간접 영향에 따른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져 농가와 지역사회의 아쉬움이 커짐. - 태풍 대비 해상·현장 안전점검 강화 · 제주해경이 태풍 돌핀의 북상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양오염 취약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발령 기간 제주도 전 해상에는 강한 바람(9~16m/s)과 최대 5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됨. · 서귀포해경은 여객선과 유선, 주요 항·포구 대상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고 제주 서부소방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취약지역 대응 계획을 점검했으며, 서귀포시는 태풍 전후 노면청소차를 투입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책을 새로 시행함.
지역·사회	가뭄 (중산간)	- 폭염·가뭄에 물 사용 급증…비상급수 가동 ·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도내 상수도 하루 공급량이 전년보다 9% 증가한 47만 5154㎥를 기록해 전체 시설 용량(51만5498㎥)의 92%에 달했으며, 조천 중산간 등 일부 급수 취약지역에서는 단수와 저수압 발생이 잇따라 상수도 민원이 속출함.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정수장 17곳과 지하수 299공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 체계에 하루 8만톤 규모의 예비지하수 70공을 추가 가동하고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물 사용량이 가장 무더웠던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함. - 한 달여 만의 단비, 가뭄 해갈엔 역부족 ·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제주에 지난 9일 한 달여 만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적어 해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한 달 이상 평년 대비 기온이 1.9도 높고 강수량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가뭄과 폭염이 지속돼 옴. ·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지·중산간에 10~50mm의 비가 전망되는 등 향후 강수가 발작물 작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은 농가들이 충분한 비를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돼 가뭄 대응 지원이 요구됨. -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현장 점검 · 현원동 제주시 부시장인 6일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녕해수욕장과 월정해수욕장, 농업용수 공급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안전 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실태를 점검함. · 구좌읍 월정리 농로 주변 등에는 폭염·가뭄에 대비한 물백(이동식 물탱크)이 설치돼 운영되는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뭄 장기화

지역·사회		에 대응해 급수 취약지역과 농업 현장을 직접 챙기는 행정의 현장 중심 대응이 강화됨.
	돌고래 (보호)	- 돌고래 관광선박 관람지침 위반 실태 확인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이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이용해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187회 운항 분석에서 해양수산부 관람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돌고래 300m 이내 접근 시 엔진 정지, 50m 접근금지 등 접근 거리를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더기 위반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관광객을 태운 선박들이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관광선박 수중소음, 돌고래 소통 방해 우려 · 연구 결과 일부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돌고래를 쫓는 관광선박의 과도한 접근과 수중소음으로 돌고래 서식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제주 연안의 대표 해양생물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주변에서 관광선박 운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중소음이 돌고래의 의사소통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단속 없는 관람지침…관리체계 마련 시급 ·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관광선박 관람지침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침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단속할 방안이 전무해 단속은 없고 위반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실정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 연구진은 관람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단속 부재 속에 위반이 계속되는 현실이 구체적인 현장 조사로 확인된 만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부각됨.
	당근 (파종)	- 폭염·가뭄에 당근 파종률 20% 그쳐 ·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에서 올해산 당근 파종이 본격화됐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발이 바짝 마르면서,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평균 당근 파종률이 약 20%로 전년 대비 9%포인트 낮은 수준에 그쳐 농민들이 애를 태움. · 재배면적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수확량은 날씨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파종이 8월 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기술원이 파종 이후 초기 관리를 당부하는 등 극심한 가뭄 속에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이어짐. - 단비 대신 강풍만…당근 농가 비상 ·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 기대했던 단비 대신 거센 강풍만 몰아치면서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은 당근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으며, 구좌 지역 강수량이 4.5mm에 그쳐 밭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짐. · 극한 폭염 속에 한 달째 비를 애타게 기다려온 농민들은 5~30mm의 비 예보

	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강수량이 충분치 않아, 씨를 뿌려도 싹이 날지 걱정하며 타들어 가는 농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날씨가 계속돼 농가 시름이 깊어짐. - 단비에 파종 재개...이번 주 '속도전' · 지난 9일 당근 주산지 구좌읍에 한 달여 만에 4~7mm의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은 충분치 않지만 파종철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 속에 토양 수분이 다소 확보됐으며, 모처럼 내린 비에 당근 주산지 농가들의 파종 준비가 분주해짐. · 파종 적기를 놓칠까 농가들이 작업을 서두르면서 이번 주 당근 파종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 가뭄 해갈과 안정적인 파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당근 주산지의 파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